

회장단 동정

윤종용 회장 “WCG를 세계의 e올림픽으로...”

삼성전자는 국내 PC 게임시장에 이어 온라인 게임사업에도 진출해 왔다. 2000년에는 국내 e스포츠시장에까지 영역을 넓혀 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월드사이버게임즈(WCG)에 대해 공식 후원을 해왔는데, 4번째를 맞은 WCG는 이제 해외에서 행사를 갖는 등 ‘전세계 게이머들의 올림픽’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과 함께 WCG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샌프란시스코 행사장에서 만났다.



■ 윤 부회장과와의 일문일답.

- 삼성전자가 왜 WCG를 적극 후원하는지?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게임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돼가고 있다. 게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게임 주변분야로 크게 3가지를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는 소니 닌텐도 등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게임 콘텐츠 역시 일본과 미국이 점령한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게이머들이 많다. 이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든다면, 예를 들면 올림픽, 월드컵, F1과 같은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문화적 산업적 파장 효과가 아주 크지 않겠는가. 또 게임은 젊은이들이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패턴도 이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 WCG를 지원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처음 시작할 당시는 아주 힘들었다. 국내에서는 3번 개최됐는데, 처음 의도는 올림픽처럼 하려고 했지만 해외는 국내처럼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내 대회 이후 처음으로 이번 대회를 이곳 샌프란시스코 해외에서 하게 됐다. 초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WCG의 50%를 스폰서로 부담을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 전체가 호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WCG에 세계적인 회사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한다.”

- WCG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와 매출에 대해 알려달라.

“올림픽 스폰서라고 해서 당장 매출을 얻는 것은 아니다. 현재 WCG는 이미지 마케팅 개념이 강하다. 스폰서 규모는 밝힐 수 없다.”

- 현재 WCG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해외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영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수단이다. 특히 게임은 삼성전자의 영제너레이션 마케팅의 하나로 5~6년 이후의 잠재 고객에 대한 사전 마케팅 개념이 강하다.”

- WCG에 대한 국내 인지도 및 지원 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창설 당시부터 세계적인 이벤트로 기획한 것이다. 국내에서만 하는 동네잔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삼성전자의 프로게임팀인 칸 역시 국내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었다. 현재는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국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국내 게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반 등 다른 산업을 보더라도 개발사와 유통사는 분리돼 있다. 특히 유통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힘들어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맡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게임사업에 대해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했다. 이중 투자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 WCG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WCG는 4~5년 앞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40년 50년 후에도 지속할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단순하게 눈앞의 영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ETIAK 활동

아시아 5개국 공동주최 상해 '아시아전자전' 개막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 등 아시아 5개국 전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전자전을 개최한다. 그 첫 행사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아시아전자전(AEES) 2004'가 열린다.

오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5개국 120여개 업체가 참여, 첨단 가전제품·부품·반도체 등을 대거 출품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인 61개사 145개 부스로 참가하며 전시품목도 80인치 PDP TV, 55인치 LCD TV, 500만 화소 카메라폰, 60나노 8Gb 낸드형 플래시메모리 등 첨단 제품이다.

이번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아시아 전자산업 고위급 회의도 개최돼 각국의 전자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고 아시아전자산업 공동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본회 이감열 상근부회장은 "아시아전자전은 첫회인 AEES 2004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아시아 주요국 순회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아시아전자전은) 매년 한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주요 4국 가운데 당해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로, CeBIT이나 CES 같은 대형 전시회로 발전시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IT전시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전 폐막, 18억5,000만 달러 수출상담 '결실'

제35회 한국전자전(KES 2004)이 5일간의 열띤 경연을 끝으로 지난달 10일 막을 내렸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전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대만·홍콩 등 15개국 450개 전자업체들이 최신기술과 첨단제품을 선보이며 외국 바이어 5,200여명을 포함, 참관객 19만3,500여명과 수출상담 실적 18억 5,000만달러의 수확을 거뒀다.

이번 전자전은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 주요 전자전과 개최 시기가 연계돼 전 세계 유력 바이어들이 내한

해 수출상담을 벌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1,605명,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이 1,284명, 미국 등 북미지역이 1,157명, 중남미지역 632명, 중동지역 236명, 대양주지역 208명, 아프리카지역 78명 순이었다.

특히 선진국 바이어 외에 브라질·칠레·콜롬비아·인도·스리랑카·레바논·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크로아티아 등 중남미, 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의 많은 국가에서도 바이어들이 내한해 참관 및 상담을 벌여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시장 다변화와 인지도 제고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자전을 주관한 본회는 2005년도 한국전자전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보다 60% 증가한 1만2,000평 규모에 전시 아이템의 선택화·전문화를 추진, 동북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급형 DTV 확산 정책 '적중'

지난 7월 전송방식 확정과 정부의 보급형 DTV 확산정책 이후 두달간 보급형 DTV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7, 8월 두달간 국내 보급형 DTV 판매량은 작년 7, 8월 두달간에 비해 무려 53.7%나 늘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DTV 판매량도 26.9%나 증가했다.

특히 초슬림형 등 새로운 보급형 DTV가 선보이고 PDP 및 LCD TV의 가격하락도 이어지고 있어 DTV시장 활성화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7일 산업자원부와 본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평균 1만6,000여 대에 머물던 보급형 CRT DTV 판매량이 7월에 2만2,300여대, 8월에는 무려 3만5,900여대로 늘어났다. 또 월평균 3,000대 수준에 머물던 PDP TV 판매량도 7월 4,560대, 8월 5,830대로 매월 1,000대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7, 8월 두달간 보급형 DTV는 약 5만 8,200대가 팔려 작년동기 3만 7,900대보다 2만대이상 늘었으며 전체 DTV판매량도 11만 6,600대로 작년동기의 9만 1,900대보다 2만 4,700대가 증가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DTV 전송방식 확정 이후 정부가 내놓은 보급형 DTV 확산 정책이 직접

적인 DTV 수요확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가격인하 등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관섭 산자부 디지털산업과장은 “전송방식 확정 이후 DTV 판매량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준비되면서 셋톱박스를 내장한 일체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가전업체들이 중산층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보급형 CRT TV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DTV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재유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연말에 슬림형 CRT DTV가 등장하는 등 보급형도 고급화되고 PDP 등 프리미엄급 제품들도 원가절감으로 인한 가격 인하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디지털방송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거리가 많아져 환경만 갖춰지면 보급형 DTV 확산은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가전사들은 이미 보급형 CRT DTV 판매 확대에 힘입어 초슬림형 CRT DTV 출시를 준비하는 한편 PDP 및 LCD TV의 할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위원회 구성

본회(회장 윤종용)는 지난달 30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37개사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결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협력위원회에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17개 주요 가전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은 남성, KEC, 삼화콘텐서공업 등 주요 부품·소재 제조업체 20개사가 참여했다.

1차 회의는 세트업체인 대기업과 부품·소재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윤종용 회장이 위원장 겸 대기업 대표를, 남성의 윤봉수 회장이 중소기업 대표를 맡기로 했다.

협력위원회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으며 위원회 산하에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개설하고 세부 사업 추진에 관한 모임을 수시로 가질 계획이다.

제2차 일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선정

이달 말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지역에 파견돼 국산 전자부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모색할 ‘일본시장 개척 및 기술협력단’ 참가 업체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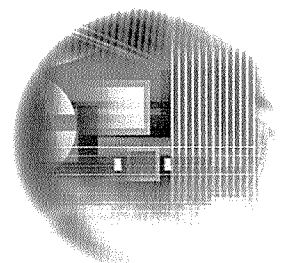
본회(회장 윤종용)는 최근 제2차 일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40여개 업체 가운데 우영·엠에스솔루션·대륙테크놀로지·오리온전기·한국안테나·삼화콘텐서그룹 등 16개사를 선정,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한·일 양국간 전자부품 기술 교류와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행사기간 중에는 일본 현지 업체와의 무역상담과 더불어 기술이전 및 제휴와 위탁개발, 공동개발 등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들이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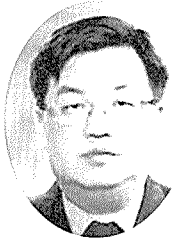
지난 9월, 10개 국산 부품업체가 참여한 1차 기술협력단 파견에서는 미쓰비시 등 81개 일본 현지 업체와 총 139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예상되는 계약금액만도 2,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일본시장 확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2차 일본시장개척단에는 우영·데이시스템·대륙테크놀로지·에이스웨이브텍·재영솔루션 등 디스플레이 및 광학 관련 부품업체는 물론 엠에스솔루션·대륙테크놀로지·오리온전기·한국안테나·삼화콘텐서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국산 정밀부품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본회 임호기 부품소재산업팀장은 “기존의 시장개척단과 달리 현지 바이어와의 사전 약속을 통해 상담 효율을 높이고 수출 상담과 동시에 주문자설계생산(ODM) 등 한·일 부품업체간 기술제휴 및 교류도 적극 추진한 점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주)엠에스솔루션

대표자 : **구명권**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633-2 고등기술연구원 4층

전화 : 031-330-7791~9 팩스 : 031-330-7792

<http://www.mems-solution.com>

RF Filters(FBAR), RF MEMS Switches, Foundry Services



(주)에어링크테크놀러지

대표자 : **조성열**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434-3

전화 : 031-321-6767 팩스 : 031-321-6760

<http://www.air-link.co.kr>

무선통신제품



이건테크놀로지(주)

대표자 : **안평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12 현대 I 빌리 413호

전화 : 031-737-9144 팩스 : 031-737-9143

<http://www.eg-tech.co.kr>

어레스터(Gas tube arrester), 보호기(Surge protector) 및 IDC 보호기반



(주)에스티에프

대표자 : **이철환**

경기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711

전화 : 041-901-0500 팩스 : 041-901-0319

<http://www.e-stf.co.kr>

자동차전장부품



(주)피카소정보통신

대표자 : **김동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513-15 선택시티 3층

전화 : 031-777-2000 팩스 : 031-777-2100

<http://www.picasoic.com>

DVR(Digital Video Recorder)



(주)윈포넷

대표자 : 권오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7 코오롱 디지털타워 빌란트 13F

전화 : 02-2103-5600 팩스 : 02-2103-5601

<http://www.win4net.com>

DVR(Digital Video Recorder)



(주)미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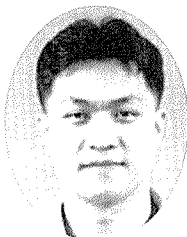
대표자 : 박찬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1-4 청명타운텔 403호

전화 : 031-202-5999 팩스 : 031-202-5990

<http://www.mirtec.com>

PCB/SMT 검사장비



(주)인트텍

대표자 : 김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902호

전화 : 02-566-3218 팩스 : 02-557-3277

<http://www.intotech.co.kr>

DVR(Digital Video Recorder)



(주)아이리버

대표자 : 양덕준, 이래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7 보나벤처빌딩

전화 : 02-3019-6557 팩스 : 02-3019-1800

<http://www.iriver.co.kr>

MP3



(주)휴텍21

대표자 : 박태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 3차 116호

전화 : 02-2107-3946 팩스 : 02-2107-3940

<http://www.hutech21.com>

중계기용 확장장치